



## 건축문화 유감

The Actual Phases of Our Architecture

유병우 / 씨엔유건축사사무소  
by Yu Byung-Uh

우리나라의 건축문화가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보면 근대화되기 이전까지 일반 주택의 주종을 이루던 원만한 초가지붕의 형태가 새마을운동으로 지붕을 스테트로 교체하기 시작하면서 농촌 근대화를 외형적으로 성공리에 수행하는 관주도의 문화로 바뀌더니, 오랫동안 사용해온

건축자재인 목재가 방화의 염려가 있다는 법적인 근거로 배제되고 영구적이고 튼튼하다는 이유로 인하여 벽돌로 대체되면서 조적조 주택으로 인위적인 시도가 되어왔다.

그후 조국 선진화의 상징으로 등장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주택보급률을 높인다는 미명 아래 이제는 주거형태가 거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획일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의 건축문화는 구조나 형태와 건축재료까지도 너무 관주도로 획일적인 변천의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건축을 흔히 '종합예술'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다 좋고 아름다운 집에서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예술성을 가미하려는 본질적인 욕구 때문이다. 또한 건축양식이 각 지역의 기후와 풍습에 따라서 독특한 입면을 형성하면서 건물의 외관이 변천하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치, 경제, 문화의 특성에 따라서 색다른 주거 형태를 추구하면서 예술의 각 분야에 영향을 미쳐 왔다.

그런데 최근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지방의 특성에 알맞은 건축문화의 형성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자유경쟁 시대에 동반하여 이상한 형태의 주변환경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얼마짜리 그림을 그릴까요?”라고 물으면, 건축주는 다음에 열거하는 열가지의 금액 중에 세개만 선택하여, 이를 합하여 셋으로 나눈 금액보다 조금 비싸게 그릴 수 있는 운 좋은 사람이나 만나자고 요구를 한다.

그리고 나서 수술대에 누운 환자가 요구를 한다. ‘이번 수술은 아프지 않게 하되, 빨리 상처가 아물어야 함은 물론이고 내가 제시한 이러

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수술을 하시오' 라고. 도대체 왜 아파서 찾아왔는지 모르겠고, 얼마짜리 그림을 그려내야 할지 모르겠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축설계용역을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이 하면 안되므로, 일정한 규정에 의한 거래를 하라고 요구한 결과이다.

관공서에서 발주되는 건축설계용역에 품질관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부터 민간공사의 발주도 이와 흡사한 형태의 발주가 서서히 시작하였다. 현상설계 경기도 아니고, 공개입찰도 아닌 두 형태의 특징만 선택하여 이것을 교묘히 절충하여 발주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다. 가끔 사무소로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설계용역과 감리비의 최저 서비스 단가를 병행하여 제출하라는 피문서를 접하게 되고, 설계경기를 마치고 나서 발표 이전에 설계비를 경쟁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건축주의 의도에 휘말리기 쉽다. 시장경제의 순리에 따라 싸고 좋은 물건을 찾는 일반시장의 상거래와 똑같은 뿐이다.

모름지기 예술은 작가의 개성과 경륜에 따른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고, 그 작품에는 작가의 혼을 담아서 내어놓는다.

이러한 창작물을 금액으로 견주어 수주한다는 것 자체도 서글픈데 거기다가 추첨까지 하니, 무엇이 자유경쟁이고 공정한 행위인지 모르겠다.

몇 해전까지만 해도 건축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하면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참여자체를 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그러한 도덕성이 규정에 따라 증발해 버리고 마치 미국의 서부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개척시대를 연상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건축물의 설계는 입찰제도가 아닌 설계안의 공모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므로써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건축사 자신은 자기의 계획작품을 훌륭한 예술품으로 남기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한다.

또한 이러한 주변 여건을 형성하여 줄 책임이 우리 사회와 국가에 있고, 이에따른 보답으로 우리는 경제성이 있고 편리한 공간을 구성하여 건축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최소한의 개성이 존중되어, 건축사가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건축을 지금의 우리사회는 요구하는데, 현재도는 이를 쉽사리 용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가 시작되면서 일부 발주자는 건축에 대해 이해부족과 전반적인 기획능력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하여 변칙적인 발주의 조짐이 시작되고, 기초단계에서 주위의 조력이 필요할 때 받지 못하여 공사 준공시까지 틀린 계획표에 의한 무리한 진행을 강요하게 되고, 건축사 사무소는 자체 운영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건축사보의 확보 및 수급을 적절히 탄력성을 두어야 경영이 가능한 지경이다.

결국 잿빛 구름 가득한 하늘을 쳐다보고 천운을 기대하는 방법이 최선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관주도의 건축문화 형성과정이 초기에는 지붕의 재료에서 시작하여 형태를 바꾸었고, 건물의 구조체를 가구식에서 조적조로 바꾸어 놓았고, 이제는 발주방법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질적인 저하를 유도하는 셈이 되고 말았다.

건축물의 계획은 경제성을 수반하기에 설계의 수주과정에서 질적인 문제는 거의 결정되고, 관에서 발주하는 형식을 따라서 자연히 민간공사로 그 방법이 유입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 압박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한다.

지금 우리 주위에 새로이 지어지고 있는 공공시설 등 많은 건물을 바라볼 때, 일정한 디테일로 국적이 없는 건축을 자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서를 보편화시키고, 창작성이 규격화되고 있음이, 오늘을 사는 건축인으로 바라볼 때 매우 유감스럽다.